

옴기

옴 5:1-27 “나라면 하나님을 의탁하리라(반쪽 진리)” 2019.10.12.(주)

■ 마중물

- 외국인 노동자와 장애인이 모욕을 느끼는 말

‘한국인 다 되었네요’, ‘희망을 가지세요’

“희망적인 것은,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별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이다. 다만 차별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을 뿐이다.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량한 시민일 뿐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 ‘선량한 차별주의자’들을 곳곳에서 만난다.” (김지혜. [선량한 차별주의자] 창비. p.11)

-차별에 관해 이야기 할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은 ‘나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’고 확신하는 사람이다

■ 고마운 친구들

옴 2:11-13 “그 때에 옴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옴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¹²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옴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겹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¹³밤낮 칠 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옴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”

■ 그러나 위험한 친구들

- 엘리바스, 빌닷, 소발

4:1-2 “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²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싫증을 내겠느냐,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”

3-5 “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⁴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⁵이제 이 일이 네게 이르매 네가 힘들어 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치매 네가 놀라는구나”

7-9 “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⁸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⁹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”

• 인과응보(因果應報), 자업자득(自業自得), 사필귀정(事必歸正)

5:8-14 “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... ¹²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¹³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¹⁴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”

17-22 “볼지어다 하나님께 장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장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¹⁸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... ²² 두려워하지 말라”

27 “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 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”

■ 흘려보내야 할 생명수